

11/29(화) 시편(4 권) 묵상 6

시편 94:1-2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은 사회적인 갈등과 불의 속에서 의인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맡기는 시입니다. 이 시는 구조적으로 1-3절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4-7절은 '악인들의 잔혹상'을 구체적으로 묘사, 8-11절은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냄, 12-19절은 '의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사, 20-23절은 '악인의 최후에 대한 확신과 기원'입니다.

세상의 재판장

본문 1절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서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라기 보다는 억압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공격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 정의에 대한 심판을 탄식합니다. 본문 5-6절에 보면 당시 배경에서 사회 정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5-6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 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악인에 의해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뻔뻔스럽고 냉소적이며 종교적 오만함까지 서슴치 않고 드러냅니다(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이처럼 교만한 것일까요? 과거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바벨론 땅에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교만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해 시인은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2-3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악인의 정체가 시편 마지막 연에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악한 재판장입니다(20절, **"울레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이 악한 재판장은 율법을 빙자하여 온갖 불법을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이나 재판장들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높은 재판장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확신

시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인의 어리석은 말과 행위를 꾸짖게 됩니다(8-10절,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9-10절은 수사의문이 세 번 반복되면서 악한 재판장의 이전 조롱을 되받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신다고 빈정거렸는데 시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라고 경고합니다(잠 29: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시 58:8,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열국의 왕이시고 동시에 재

판장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시편 93편과 94편). 그 결과 의인과 악인의 최종 판결이 다음과 같이 나게 됩니다. 먼저 의인의 판결입니다(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는 비록 의인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과 징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도움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의 판결입니다(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3절, “그들이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들은 무리로 모여서 의인을 ‘법정적 살인’으로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서 의인은 살려 주시고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패배하고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악인의 대표인 재판장은 이 세상의 지혜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심판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가 더 의지하게 되면서 어리석게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전 1:16,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주가 주신 지혜와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살아갔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인간의 지혜입니까? 그보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삶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오늘은 미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미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다음 세대의 부흥 그리고 한인이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영어목회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